

회의명	'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1. 1. 6.(수) 14:00
장소	대학본부 5층 중회의실
의안	제1호 안건: '21학년도 공주대학교 등록금 책정(안) 심의 제2호 안건: 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합의사항	○ 학부, 대학원 등록금 동결 ○ 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입학금) 179,000원, (수업료) 1,938,000원 등록금 책정
토의내용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경과보고(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제1호 안건: '21학년도 공주대학교 등록금 책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팀장): <안건자료 설명> 1안: 입학금 동결/학부 및 대학원 수업료 동결 2안: 입학금 동결/학부 수업료 동결/대학원 수업료(II) 1.2%인상 - (위원장): 1안, 2안을 참고하여 위원분들께서는 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 대학원 수업료를 인상을 했을 시 어려움이 있는지. - (재무팀장): 우리대학의 경우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 하였으나,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못하였음. 또한, 주변 충청권 대학도 동결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임. 지난 2년동안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였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등의 고려 필요 - (위원장): 코로나특별장학금을 편성하여 학부생 위주로 지급한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김황래 위원): 등록금 동결, 인하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을 했을 시 학교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 (재무팀장): 대학원생 등록금만 1.2% 인상하게 되면 총액 84,000천원정도 인상되는 요인이 됨. 다만 동결로 인해 세입이 일부 감소하지만 예측 가능한 자금운용을 강화하여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여 세입감소에 대해 대응할 계획임 - (위원장):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될 시 기본역량진단 등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 (재무팀장): 학부생의 경우에는 인상을 하게 된다면 각종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II유형에 참여를 못하여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학부생은 인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각종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음. - (위원장): 대학원의 경우 재정의 어려움으로 코로나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학원생도 동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인상 예정인 타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인상을 할 수 있는 건지. - (재무팀장):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율이 정해져 있음. 인상하는 대학들은 법적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황래 위원): 지역 뉴스에 한발대의 경우 등록금 0.47%인하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 (재무팀장): 학부생을 대상으로 0.47% 인하를 하였음. 각 학교마다 평균 등록금이 있는데, 전체 평균등록금이 기준치보다 올라가서 인하한 것으로 파악됨. - (위원장): 학부, 대학원 수업료 동결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다른의견이 없으신지. - (전위원): 이의 없음. - (위원장): 제1호 안전에 대한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	---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내용 요지</p>	<p>○ 제2호 안전: 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팀장): <안전자료 설명> 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개원('21. 3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등록금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제시함. - (위원장): 위원분들께서는 2호 안전 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 전문대학원 특성상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중 어느쪽으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강대성 위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중 어느 곳에 맞추느냐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특수대학원의 경우 재직자의 재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설립 목적이 있다면, 전문대학원은 정책전문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대등하다고 판단 되어 일반대학원의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함. - (위원장): 인근대학과의 등록금 차이는 어느정도인지. - (재무팀장): 타대학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음. - (김황래 위원): 정책융합전문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의 성격과 유사하지 않은지. - (재무 팀장): 교무과의 확인 결과 학사 운영 상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에 속하지 않는 경계점에 있음. 참고로 인근대학원을 참고하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다수 있음. 타대학 전문대학원의 수업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수대학원보다 상향하는 곳이 많았음. 우리대학 정책전문대학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계기가 있어 수업료도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의 준해서 설정함. - (김황래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등록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 (재무 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산업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립대학보다 등록금액이 높은 수준에 있음. - (김황래 위원): 충남대학교 특수대학원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대학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책정을 해도 낮은 수준임. - (재무 팀장): 참고로 우리 대학 등록금은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저 수준에 있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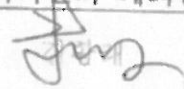
- (류인성 위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원에서 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금액인지.
-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대학원 자체운영 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금액임.
- (류인성 위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시한 금액 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시한 금액으로 가야된다고 판단됨.
- (위원장): 우선 인근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며, 학교 재정을 위해서 어느정도 등록금을 정상화 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안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
- (김황래 위원): 한발대 정책학과의 경우 200만원이 넘음. 우리대학의 네임벨류도 있고,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최소한 충남대 수준에서 한발대 수준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학생은 등록금이 저렴한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지, 등록금이 높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인근대학의 등록금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 (류인성 위원): 인근 전문대학의 등록금과 비교 했을 때 10만원 정도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금액임. 또한, 정책융합전문대학원에서 요청한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수업료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정책융합전문대학원에서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주대학교 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책융합 전문대학원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
- (전 위원): 이의 없음
- (위원장): 제2호 안전에 대한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 (위원장): 이상으로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포함.

회의록 확인	이달은	이완복	류인성	김황래	김대성
	박기석	김소리	박종민	신현호	이병익

2021. 1. 12.

확인자: 위원장(직명) 

- (류인성 위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원에서 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금액인지.
- (정책융합전문대학원): 대학원 자체운영 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금액임.
- (류인성 위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시한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시한 금액으로 가야된다고 판단됨.
- (위원장): 우선 인근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며, 학교 재정을 위해서 어느정도 등록금을 정상화 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안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
- (김황래 위원): 한밭대 정책학과의 경우 200만원이 넘음. 우리대학의 내입별류도 있고,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최소한 충남대 수준에서 한밭대 수준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학생은 등록금이 저렴한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지, 등록금이 높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인근대학의 등록금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 (류인성 위원): 인근 전문대학의 등록금과 비교 했을 때 10만원 정도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금액임. 또한, 정책융합전문대학원에서 요청한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수업료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정책융합전문대학원에서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주대학교 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책융합전문대학원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
- (전 위원): 이의 없음
- (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 (위원장): 이상으로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포함.

회의록 확인	임달오	이완복	류인성		강대성
	박기식	김소리	박종열	신현오	변영덕

2021. 1. 12.

확인자: 위원장(서명)